

“‘모은’은 감정 거세당한 인물…전도연 칭찬에 감동”

김고은, 전도연과 10년 만에 호흡…“선배 보며 꿈 키워, 동시대 연기해 행복”

“모은이라는 캐릭터를 구성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간에게 과부하가 오게 되면, 감정이 완전히 거세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최근 만난 배우 김고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자백의 대가’에서 연기한 모은이 ‘감정적 거세를 당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자백의 대가’는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안윤수(전도연 분)가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 모은(김고은)으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극 초반 모은은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

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처럼 그려진다. 그는 윤수에게 자신이 윤수의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해줄 테니, 대신 다른 사람 한 명을 죽여달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사실 모은은 아버지와 동생을 함께 잃은 아픔을 지난 인물로, 이로 인한 살인의 배경이 드러난다.

김고은은 “대본 초고에는 모은이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럼 모은이 훌륭한 이야기를 펼칠 줄 알았지만, 그걸 더 어렵게 행동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더라”며 “처라리 모은은 가만히 있

는데 다수가 모은을 오해하고 멋대로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모은의 짧은 헤어스타일은 김고은의 아이디어였다. 김고은은 “모은의 머리카락에 얼굴이 습격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굉장히 짧은 머리였으면 했다”며 “사실 처음엔 반박까지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모은이 태국 의료봉사 도중 아버지와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그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다.

김고은은 “태국 촬영 당시 (대본에)



김고은은 최근 열린 ‘자백의 대가’ 시사 담당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생과 아버지를 잊은 뒤 칭찬받은 순간을 떠올리며 감격하기도 했다.

“선배님이 뒤늦게 태국 현장에 도착해서 ‘고운아 네가 감독님과 상의해서 있진 않았던 그 장면을 만들었다며. 너무 잘했다’고 다”며 “인간의 감정이 풍선 터듯 고장 나 버리는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표기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5) 이후 10년 만에 함께 호흡을 맞춘 전도연에 대해 ‘동시대에 함께 연기할 수 있었던 행복한 배우’라고 표현했다.

그는 “‘협녀’ 맨 선배님 옆에 서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었다”

며 “그땐 너무 큰 역할을 받아 한 장면 한 장면이 버겁던 제게 선배님이 도움을 주셨다면, 이젠 시간이 오래 지나 제가 옆에서 쟁겨드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고 떠올렸다.

영화 ‘파묘’, ‘대도시의 사랑법’부터 드라마 ‘은증과 상연’까지 최근 출연작들로 연달아 호평받은 김고은은 ‘자백의 대가’로 ‘연기에 물이 올랐다’는 평도 받고 있다.

김고은은 이런 반응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촬영하는 작품들이 연달아 인정받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은 많이 했지만 흥행이 저조한 적도 많았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찍은 작품들이 연달아 사랑받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칭찬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7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환경과 기쁨이 생긴다.

36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는 날이다. 48년생 같은 가격으로 몇 배로 좋은 물건을 사게 된다. 60년생 단단히 벼르다가도 막상 만나고 나면 마음이 약해진다. 72년생 몇 날 며칠 고생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84년생 만남에 있어 서로를 세심하게 살피며 배려를 잊지 말라. 96년생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굽힐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다. 08년생 동쪽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올게. 개띠, 담띠가 힘이 되어주겠다.



소띠: 달이 차면 기울고 그릇도 차면 넘치는 이치를 알아라.

37년생 지금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49년생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61년생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라. 89년생 태한 모습은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으니 굳은 마음이 필요함을 알 것. 97년생 주변에 힘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 자존심 굽히고 대처한다면 무난히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호랑이띠: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라.

38년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귀인이 등장한다. 50년생 해결이 잘 안되고 질질 끌어오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62년생 정체기가 찾아온다.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다. 74년생 내 것이 많아 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늘어나는 것이다. 86년생 상대는 진실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강하니 그 이상 실망의 높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좋겠다. 98년생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일에 확고한 거북만 서있다면 이루지 못할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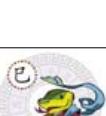
토끼띠: 하루의 시간을 잘 배분하여야 한다. 시간 관리를 잘해라.

39년생 오랫동안 두고두고 간사할 만한 일이 있다. 51년생 오랜 과거의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마라. 63년생 오른쪽이 있으면 내 리막도 있는 것이다. 오른막일 때 내리막을 바꿔야 한다. 75년생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판로를 열어가는 시기라 필요하다. 87년생 어려운 일이 다크칠 수 있지만,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99년생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겨우삼아 위기 넘기고자 한다.



용띠: 사랑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특권이니 물러서지 마라.

40년생 자연법칙에 역행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따라가라. 52년생 기본에 충실히 해야 하는 일을 얻을 수 있다. 64년생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겠다. 76년생 판을 뒤집을 만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88년생 사소한 것들은 대범하게 그냥 지나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 00년생 금전과 사랑 둘 다 중요하겠지만, 금전으로 사랑을 살 수 없음을 명심하라. 12년생 소소한 행복이나 인연, 보물을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내주위에 있다.



뱀띠: 불필요한 방향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 한 곳에 집중해라.

41년생 아닌 밤중에 흥들까 같은 일이 벌어진다. 53년생 한 번도 부를 줄 모르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65년생 한 번도 부를 줄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77년생 뿌리만 막으려는 마음은 절실히 보는 운이니 좌절하지 말고 때를 기다림이 좋은 듯하다. 89년생 불같은 정열적인 마음은 행운을 부르지만, 그로 인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말띠: 주위에 길한 기운이 가득하니 근심거리가 사라진다.

42년생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말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좋겠다. 54년생 성격을 차분히 추스르고 진단은 정확하게 하되 하고 있는 일에 지정이 없도록 하라. 66년생 진실로 노력하고 성실성이 걸려 된다면 부를 획득할 자격이 있다. 78년생 90년생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읽어 기쁘게 해줄 때 마음에 풍요로움이 따르니 모든 기쁨 얻는 것 같겠다. 02년생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비쩍 마른 고목에 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띠: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번창을 거듭하게 된다.

43년생 당신의 성격을 넓힐 때마다 노력해보자. 55년생 더 큰 것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다가 쌓아 올린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되니 한길만 택하라. 67년생 그동안 미워했던 일들의 깊이는 일들을 추진함이 좋겠다. 79년생 쉽게 절망하지 않고 흙들리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91년생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 03년생 조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나아갈 방법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원숭이띠: 남에게 베푸는 것이 많으니 저절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44년생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으니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때이다. 56년생 큰 이익을 위해서는 사소한 자손십초를 접고 머리를 숙이 줄 알아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68년생 길들이는 일들은 번갈아 찾아오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80년생 책임과 의무는 수반되는 중책이니 잘 수행하라. 92년생 언제나 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인정적이지만, 때로는 변화를 주는 것이 모든 일을 좋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



닭띠: 다행지 마라.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45년생 묵었던 사람에게 실망과 손해를 볼 수 있다. 57년생 현재의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악업은 곱하기로 선업은 나누기로 임을 명심하라. 81년생 땅으로 움직이는 일에 대문이다. 93년생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한다. 05년생 생각과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유지해야 옳겠다.



개띠: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게 되니 곤란하다.

46년생 어떤 목표라도 그건 살기가는 이유가 된다. 58년생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마라. 70년생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게 된다. 82년생 좋지 않은 흐름에 있어 중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4년생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지 만, 성과가 없다. 지치지 않게 쉬면서 해라. 06년생 버릴 것과 멀리할 것이 어디 하나뿐이겠는가. 절구별된다.



돼지띠: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하라.

35년생 써야 할 돈이라도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은 법이다. 47년생 실태래처럼 엉켜있던 일들이 저절로 풀린다. 59년생 손익이 교차하니 머리가 아플 일이 우려된다. 71년생 겁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 나부터 겁장을 챙기자. 83년생 똑같은 일이라도 마음자세는 항상 새롭게 해야 내게 이득이다. 95년생 내 몸은 내가 아끼기 어렵거나 대신해주는지는 않는다. 07년생 이익이 된다면 태산을 옮길 기세로 털내라. 행운의 수: 25 행운의 색: 검은색



칭찬받은 순간을 떠올리며 감격하기도 했다.

“선배님이 뒤늦게 태국 현장에 도착해서 ‘고운아 네가 감독님과 상의해서 있진 않았던 그 장면을 만들었다며. 너무 잘했다’고 다”며 “인간의 감정이 풍선 터듯 고장 나 버리는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표기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고은은 영화 ‘협녀’ 시사 담당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협녀’ 맨 선배님 옆에 서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었다”

며 “그땐 너무 큰 역할을 받아 한 장면 한 장면이 버겁던 제게 선배님이 도움을 주셨다면, 이젠 시간이 오래 지나 제가 옆에서 쟁겨드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고 떠올렸다.

영화 ‘파묘’, ‘대도시의 사랑법’부터 드라마 ‘은증과 상연’까지 최근 출연작들로 연달아 호평받은 김고은은 ‘자백의 대가’로 ‘연기에 물이 올랐다’는 평도 받고 있다.

김고은은 이런 반응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촬영하는 작품들이 연달아 인정받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은 많이 했지만 흥행이 저조한 적도 많았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찍은 작품들이 연달아 사랑받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칭찬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 대상 시상식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수료식 & 송년음악회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파워인터뷰]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주최한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

[Shorts]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LIVE]

동북아 AI 첨단농업 현황과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KBS1

[6]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KBS2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광주)

MBC